

진미정 · 김희삼 · 정지우 사회 정준희



유네스코토크 7

저출생 시대, 현실적 유토피아 상상하기

유네스코
토크



Korean
National Commiss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대담 진미정
김희삼
정지우
- 사회 정준희
- 기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후원 교육부
- 촬영 세상을바꾸는시간15분(세바시)

저출생 시대,
현실적 유토피아
상상하기

강연 및 대담 진미정 · 김희삼 · 정지우
사회 정영하의



유네스코토크 7

저출생 시대, 현실적 유토피아 상상하기

유네스코
토크



unesco

Korean
National Commiss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모순적이지만 가치 있는 상상, '저출생 시대의 현실적 유토피아'

유토피아(Utopia)라는 말은 1516년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토마스 모어(Thomas More)의 책 <Utopia>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이 단어는 “없는 장소”를 의미하는 ‘ou-topos’와 “좋은 장소”를 의미하는 ‘eu-topos’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장소라는 뜻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유토피아는 단순히 이상적인 사회를 그리기 보다는, 비판적 상상력을 통해 현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특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먼 디스토피아(Dystopia)에 가까울 수록, 유토피아를 그려보는 일은 우리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전례 없는 급속한 고령화와 출생 저하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

고 출산율이 0.6명 대를 기록한 가운데, ‘국가 소멸’, ‘지방 소멸’ 등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 현상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미래의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동시에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출생 시대, 현실적 유토피아 상상하기”라는 제목의 이번 유네스코 토크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이번 토크는 오늘날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해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는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저출생 자체를 문제화하기보다는, 인구 구조의 변동이라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러한 현상 기저에 놓여있는 경쟁과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공존, 포용, 연대라는 ‘공동선(common good)’의 가치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유네스코 토크는 2022년부터 청년, 인공지능, 이주민 등 다양한 우리 사회 현안을 시의적절하게 다루며 시민들이 사회, 문화 갈등 해소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 담론의 장을 이뤄왔습니다. 국내외로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힘써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창립 70주년을 맞아, 특별히 올해는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대중친화적이고 영향력 있는 형태로 현 시각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저출생 현상을 주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세 분의 연사들이 먼저 강연을 하시고, 이어서 밀도 있는 대담과 청중과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렇게 기획된 이번 대화의 장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을 만나겠습니다. 모두와 함께 만들어가는 유네스코 토크가 미래 사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건강한 토론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대표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1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소멸’이 아닌 ‘미래’를 위해



양지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문관

요즘 제가 친구들과 모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 주제는 바로 결혼, 출산, 육아입니다. 30대 초반이 되니, 이미 결혼을 한 친구도 있고 아이가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혹여 비혼이나 비출산을 다짐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이 주제에 관심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혼’, ‘비출산’이라는 단어만 보면 냉정해 보이지만, 그 또한 뜨겁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제 주변에는 환경이 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경우가 더욱 많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환경’은 단순히 재산이나 주거 공간 같은 자본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심적 여유, 시간적 여유, 주변 환경이나 동네 분위기 등 여러 복합적인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가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각자가 생각하는 ‘괜찮은’ 환경이 구축되기 전에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무책임하고 부담스러운 일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저출생을 다루는 양질의 방송, 도서, 정책 세미나, 포럼 등 저출생의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적 시도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나가자는 미래지향적인 논의보다는, 저출생의 원인이나 책임 등 문제 자체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그동안 더욱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 소멸 위기’와 같은 키워드를 쉽게 접하면서, 나라의 소멸을 걱정하며 개인의 출산을 권장하는 기성 세대와 국가를 위해서 출산을 할 수는 없다는 청년 세대 간의 입장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생 대책으로 제안된 ‘조이고 댄스’라는 이름의 체조는 무려 복지부장관상을 받았지만, SNS 상에서는 저출생 대책의 감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혹여 다양한 주체가 건설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모여더라도, 현재의 저출생 현상이 어느 세대의 책임이냐는 책임론으로 엉뚱하게 흘러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 유네스코 토크에서 이 주제를 다루기로 한 것은 저출생 현상의 원인을 탐구해서 책임소재를 밝혀내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간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뾰족한 수를 내는 것도 그 목적은 아닙니다. 책임과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저출생과 관련된 기존의 부정적 담론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해보는 시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유네스코’가 사람이라면 “국가와 사회의 소멸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같이 상상해보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 수록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할 가치들은 무엇인지 찬찬히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에 저출생 현상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가족학, 경제학, 심리학 등 여러 학계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작가/소설가, 관련 다큐멘터리 PD,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들과도 자문회의를 거치며 여러 차례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대화를 나누며, 기획자로서 저도 ‘누군가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를 키우고 싶어지는 사회’의 모습을 구상해보게 되었습

니다. 저에게는 각자도생하며 끝없이 경쟁하는 사회가 아닌, 각기 다른 개체와 공존하고 포용하며 연대하는 사회가 떠올랐습니다. ‘공존’, ‘포용’, ‘연대’. 어쩐지 익숙하지만 최근의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꼭 그 뜻을 알게 해주고 싶은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즉 현재의 저출생 현상을 자성적 계기로 삼고, 그 중요성을 잊고 있었던 공존, 포용, 연대와 같은 가치들을 사회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혼자만의 생각이 다양한 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이번 유네스코 토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유네스코 토크 현장에서 다양한 시각을 나눠주신 참가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강연과 대담을 함께 만들어 주신 김희삼 교수님, 정지우 작가님, 진미정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첫 번째 토크부터 유네스코 토크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신 사회자 정준희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 단계부터 유네스코 토크를 함께 구현해주신 세바시 구범준 대표님, 조승현 팀장님, 윤성아 작가님을 포함한 세바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유네스코 토크를 지원해 준 교육부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유네스코 토크와 다르게 새로운 포맷을 제안드렸을 때 지지해주시고, 올해 유네스코 토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현숙 본부장님, 정용시 팀장님, 신종범 단장님, 네트워크사업실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기획할 때부터 논리적 맥을 짚어 그 깊이를 더해주시고, 개회사로 포문을 열어 주신 한경구 사무총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담집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본문 교열을 맡아주신 이의진 선생님, 표지 디자인을 맡아주신 김기현 디자이너님, 본문 디자인을 맡아 주신 정명진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년 유네스코 토크에서 뵈겠습니다.

차·레

유네스코 토크 5

기획자의 말 8

저출생 시대, 현실적 유토피아 상상하기 15

강연 · 17

현실적 유토피아로 가는 세 가지 방법 _ 진미정 · 17

초저출생 시대, 행복을 재정의하다 _ 김희삼 · 32

결혼과 육아를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려면 _ 정지우 · 46

대담 · 60

디스토피아 속 유토피아 상상하기 · 62

인구 감소라는 공포 · 64

육아와 삶의 비가역성 · 69

생존, 행복, 돌봄 · 73

청중과의 대화 · 83

부록

101

새창을
바라본다
15
시각



세바시 X 유네스코 토크 특집 강연회

저출생 시대, 현실적 유토피아 상상하기

2024년 8월 8일 목요일 14:00, 세바시 목동 스튜디오

정준희[진행자]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
MBC 100분토론 진행자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행복 공부: 나의 파란색을 찾아서』 저자

정지우

작가, 변호사 겸 문화평론가,
『그럼에도 육아』 저자



저출생 시대, 현실적 유토피아 상상하기

‘유네스코 토크’에서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 문제가 개인과 출산 선택을 넘어 전체 인구구조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출생률과 다른 개념으로서 여전히 인구통계와 국제비교에 중요한 개념인 ‘출산율’ 용어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진미정 교수님 강연>

현실적 유토피아로 가는 세 가지 방법

- **진미정**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서 가족정책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진미정입니다. 제가 가족정책을 연구하다 보니, 요즘 저출생과 관련한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진미정 교수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서 가족정책, 저출생정책, 일과 생활의 균형, 돌봄 정책, 가족인구학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공저)로는 『가족과 돌봄』, 『가족발달』, 『한국가족을 말한다: 현상과 쟁점』 등이 있다.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도대체 저출생의 해결책이 무엇이야’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난감합니다. (웃음) 저출생이라는 현상이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단순하지 않다는 건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해결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외국 사례에서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나라들이 지향하는 가족정책의 목표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자든 남자든 일과 자기 생활의 균형을 찾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나라들의 가족정책의 목표이지 출산율을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도입했을 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토크를 시작할 때, 감사하게도 저를 전문가라고 소개해주셨는데요. 전문가로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독 악플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닌, 단순 인구 통계를 얘기하거나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하거나, 전문가가 현상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유독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출생이라는 화제에 대해 유독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걸까요?**

첫째는 **주제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기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새롭지 않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 특히 청년 세대



중에서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 삶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렇게 넘겨짚어서 말하지?’ 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연애나 결혼, 가족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그 누구도 나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죠. 그런데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해서 넘겨짚어서 이야기하는 게 불쾌감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쾌감이 때로는 자조나 냉소로 나타나기도 하고, 분노로 표현되기도 하죠. 내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또는 나의 상황을 안 좋게 만든 이 시대와 사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나 댓글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디스토피아(dystopia)적인 면모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댓글들만 봐도 도대체 왜 우리가 저출생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죠.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또는 원하는 사람조차도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상황도 있고, 아이와 노인과 돌봄을 무시하거나 냉소하는 문화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 하자면 더 우울해지고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유토피아(utopia)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같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출생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저 역시 지금과 같은 현실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거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소소한 출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



을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의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지 않는 이유도 다 다르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 다르겠죠.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론 중, 아이섹 아이젠(Icek Ajzen)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계획된 출산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출산의 결정, 또는 출산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규범,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 특성, 무엇보다도 개인이 보유한 자원이 출산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은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죠. 내 파트너가 고려하는 조건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출산은 두 사람의 복잡한 요건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결정은 향후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이걸 남의 말을 듣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와 남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항상 같은 건 아니거든요. 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어려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 저 정책은 틀렸어’가 아니라, ‘나한테는 저 정책이 크게 관련은 없지만, 누군가한테는 필요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에게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진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태도를 지양하고,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마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웃음) 혹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워낙 명작이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시다.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았을까요? 거기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주인공이고, 그 사람들의 삶이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서로 어우러져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걸 잘 담아냈다는 점에서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도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결혼하고 출산이라고 하는 삶을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결혼하고 출산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는 의미는 아닌 거 같아요. 결혼과 출산이라는 제도는 매우 오래된 제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구조화되어 있고, 그걸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대체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 똑 같지는 않겠지만, 결혼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지, 아이를 낳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조금은 상상이 가능하죠.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삶’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최근에 시작된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명확히 보여지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 드라마에서처럼 삶이 불안정하거나 힘들게 느껴질 수도, 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같이 살고 싶은지, 언제 같이 살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 만약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노후에 누구와 같이,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단순히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치 노후자금을 준비하듯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의 생애 후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이 없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차근차근 생각하고 향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하신 분들은 정해진 대로, 안정된 삶을 살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정해진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결혼을 선택한 사람들도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의 원래 가족과의 관계나 자녀를 키우는 방식에 있어 남들과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튜브를 보면 현실 가족에 대한 콘텐츠가 많잖아요. 특히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께 장난을 치거나 놀리는 내용의 콘텐츠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기획하시는 분들이 사회에 대한 큰 문제의식이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만들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경직되어 있는 우리의 관행들을 깨는 소소한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재미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아이를 키우는 방식일 텐데,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자유롭게 꿈꾸고 상상하는데, 막상 아이에 대해

서 생각을 하면, 옛날 사고방식으로 돌아와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 키우는데 예전보다 돈이 참 많이 들어요. 태아 보험이라던지, 태교 여행이라던지, 교육용 태블릿, 드림 렌즈 같은 것들이요. 20년 전만 해도 세상에 없었던 것들인데, 지금은 마치 아이를 키우는 데 필수적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들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필수인 것들일까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육아물가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하는데요. 발표에 의하면, 육아 물가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들이 ‘어린이 보험’, ‘영유아 학습지’, ‘영어 유치원’ 등입니다.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남들이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도 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아까 도태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돌아보면 나는 내 자신을 개성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되게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서는 그런 주도성을 발휘할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약 소비 중심적인 양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한테 미안해 하실 필요 없고요, 미안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우지 않아도 아이들은 충분히 잘 자랄 수 있고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해 할 필요도 없고, 아이가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렸을 때, 다들 학원에서 피아노나 미술을 배운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걸 하지 않았다면 삶이 도태될 정도로 힘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들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취향과 가치를 좀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어떻게 보면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취향대로 선택하고,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나의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약자에 대한 보호나 공동체나 돌봄은 취향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이 아동과 가족이 갖는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약자와 공동체와 돌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출생이라는 현상보다도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인류가 발전해 온 역사적인 방향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가족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탈북 가족에 대한 연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탈북해서 한국에 오신 가족에 대해 연구를 하는데, 그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느낀 점은, 북한은 정말 ‘각자도생(各自圖生, 제각기 살아 나갈 방법을 꾀함)’이라는 거예요. ‘승냥이들만 살아남고, 양 같은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여기서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각자도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선택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봄을 응원해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돌봄을 응원할 수 있는 사소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에서 아이들이 조금 떠들더라도 눈총 주지 않고 조금 참아주는 것, 멀리서 유아차를 끌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잡아주는 것,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어르신이 천천히 걸어오고 계시면 닫힘 버튼을 급히 누르지 말고 조금 기다려 드리는 것 등이요. 이런 것들이 **사소하지만 돌봄을 응원하는 일**이라

고 생각하거든요.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돌봄을 응원한다는 일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내 주위에 누군가가 임신했다고 그러면 심장이 덜컹합니다 ‘저 사람 조금 있으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하겠구나’, ‘그러면 그 일이 누구에게로 떨어질까?’, ‘대체 인력이 들어올까? 아니면 그냥 N분의 1로 나눠져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혹은 동료가 복직했는데, 얼마 후 둘째를 임신해서 또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응원하기 쉽지가 않아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면,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동료에게 부담이 될까봐”입니다. 60% 정도가 그렇다고 얘기하거든요. 동료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놓고 갔을 때, 동료들이 얼마나 힘들까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고 눈치도 보이는 거죠. 의외로 ‘승진에서 뒤쳐질까봐’, ‘인사상의 불이익을 얻을까봐’ 등의 이유는 적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눈치를 보는 대상이 나의 고용주보다 내 옆자리 동료인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옆자리 동료가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라” 이

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울까요? 그리고 남아서 내 일을 해주는 동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언젠가 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선택지에 결혼과 출산이 없는 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계산하자면 나에게 손해나 불이익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억지로나마 시민 의식을 발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결혼과 출산에 수반되는 돌봄은 하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우리 부모님을 돌보는 돌봄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휠체어를 타게 되실 수도 있고, 더 나이가 들면 내가 휠체어를 타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옆자리 동료가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고맙고 안심이 될까요? 이런 것들이 돌봄을, 출산을, 결혼을 응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이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 하나는 오늘 말

썸드린 것처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친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돌봄을 응원하는 것**, 이러한 시도가 현실 가능한 유토피아를 만드는 데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삼 교수님 강연>

초저출생 시대, 행복을 재정의하다

- **김희삼** : 안녕하세요,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희삼입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



김희삼 교수

교육, 일, 노후보장, 행복 등 사람의 일생과 행동에 관심이 많은 경제학자다. 한국 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냈고, 현재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왜 지금 교육경제학인가』, 『행복 공부: 나의 파랑새를 찾아서』 등이 있다. 인구정책, 사회 분야 실증연구, 이공계 교육혁신에 공헌하여 대통령 표창,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성공과 행복** 중에 무엇을 더 바라시나요? ‘나는 행복을 더 바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손을 안 드신 분들도 좀 있었어요. 성공을 더 바라시는 분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성공해야지 행복한 거 아닌가?’, ‘실패했는데도 행복하다는 건 정신 승리 같은 것 아닌가?’라는 거죠. (웃음)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20대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재능, 외모, 성격, 노력, 부모의 재력, 인맥, 우연한 행운. 이렇게 7가지를 제시하고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지 고르게 했는데요, 조사 결과 무려 50.5%가 ‘부모의 재력’을 성공 요인 1순위로 선택했어요. 같은 내용으로 중국, 일본, 미국 대학생들 대상으로도 조사를 했는데, 그 청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결과를 보면, 요즘 한국에서는 아무나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1969년생인데, 그해 백만명 정도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최근 출생아 수는 그때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죠. 이전보다 부모가 되기로 마음먹은 부부들이 훨씬 적어졌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한국 청년들이 부모의 재

력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학자들은 한국 사회를 **‘발전주의 모델(developmentalist model)’**로 설명하곤 해요. 시대별로 한국 정부의 구호는 ‘근대화(modern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 ‘선진화(advancement)’ 순서로 발전해 왔죠. 기본적으로는 성장이 늘 중심이었고, 항상 지금이 위기 상황이며 번영과 쇠락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강조했어요. 위기의식과 미래의 과실을 상기시키면서 국민을 독려해 왔던 거죠. 물론 발전주의는 압축 성장,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1인당 소득이 빠르게 상승했어요.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선진국이 된 최초의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물질 중심의, 생존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입니다. 경쟁이 너무 심하고, 불안과 강박도 있고, 피로를 넘어서 탈진하기도 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회로 남아있어요.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는데, 세계 행복도 순위는 늘 50위, 60위권이거든요.

여러분, ‘철부지’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철부지의 ‘철’은 계절을 말해요. 즉, 철부지란 계절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농경사회에서는 24절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언

제 씨를 뿌리고, 수확할지 알아야 하니까요. 이걸 몰라서 때에 맞게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사람,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가 아동, 청소년, 청년을 철부지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놀아야 할 때 못 놀고, 잘 시간에 못 자고, 일할 나이에는 일자리를 못 찾고, 연애할 나이에는 연애를 못 하고, 결혼할 나이에는 결혼을 못 하는 거죠. 아이를 낳는 것도 안전하고 건강한 시기가 있는데, 그때 아이를 못 낳고 있는 거죠.

제가 은유적으로 철부지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정말 철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닌 듯해요. 하지만 경쟁



이 심한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 청년들로서는 ‘사람 만나는 게 시간 낭비 아닐까?’, ‘연애도 결혼도 시간 낭비 아닐까?’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드니까 여유가 안 생기는 거죠. 또 나도,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텐데 굳이 낳아서 기르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들고요. **한국의 초저출생 현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세상에 보내는 고요한 외침, 또는 시대의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발전주의 모델,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청년들하고 ‘삶을 바꾸는 상상’이라는 주제로 토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삶을 바꾸는 상상에 대해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때 한 청년 분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먼저 상상을 바꾸는 삶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거였어요.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은 사회적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문제이지만, 행복 중심의 사회에 가까워지려면 우리 스스로도 **‘지속 가능한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

로 행동이에요. 의식적,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행복을 높일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 **관계 형성, 몰입, 덕행** 등이었어요. 여기서 관계란 ‘따스한 인간관계’를 말해요. 몰입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경험’을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죠. 마지막으로, 덕행은 ‘타인에게 도움이나 위로가 되는 행동’을 말해요.

그런데 관계와 덕행, 몰입에는 각각 관계를 형성하고 덕행을 베풀 사람이나 몰입 대상과의 연결감이 필요해요. 또 그런 행동



을 함으로써 연결감이 강해지죠. 이 과정에서 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나를, 내 삶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삶에서 행복한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여기서 손을 안 드시면, 같이 오신 분들, 특히 배우자나 가족과 오셨다면 관계가 애매해질 것 같은데요. (웃음) 네, 좋습니다. 손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번엔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까보다 조금 적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드셨네요. 이런 강연에 시간 내서 오시는 분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요즘 흔히들 말하는 ‘나 혼자 산다’ 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유일한 동거인이 바로 나인 거죠. 그렇기에 나 자신과 친해야 일상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먼저 나 스스로 나를 좋아해야 돼요. ‘나’에 대한 호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타인과 사회가 내리는 평가

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그동안 받아왔던 평가를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수능 같은 전국 단위의 시험을 응시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수능은 상대평가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사람들을 나눕니다. 이처럼 등급을 나누어 사람을 평가하는 사고관이 현실에서도 계속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 아직도 1~9등급 중에서 스스로를 특정 등급에 속한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우리는 육질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 소고기가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이 평가받고 비교를 당해왔어요. 집에서 는 소위 ‘이웃집 엄친아’들과 많이 비교당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기대가 높아서 힘들었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주눅 들었죠. 이런 경험들 속에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채, 여러 인간관계에 얽이다 보니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 ‘혼자 있으니 상처받을 일도 없다’라면서 고립을 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 형태의 고립은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선택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수동적인 고립은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느껴

지는, 일종의 ‘관계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해서, 내 의지로 일시적인 고독을 택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결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도 ‘가족’은 인간관계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나, 다른 인간관계가 없을 때도 가족은 늘 존재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가족이 좀처럼 생겨나지 않고 있어요. 과거 고출산 시대, 대가족 시대에서 현재 저출생 시대, 핵가족 시대가 되었는데, 앞으로 핵개인 시대, 무가족 시대가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미래를 예상하고, 바라고 있나요?

좋은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실 진단을 넘어서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세 개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 초저출생 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실마리를 찾아 보려고 해요. 공교롭게도 모두 ‘모모’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먼저 프랑스 작가 로맹 가리(Romain Gary)의 소설 『자기 앞의 생(La vie devant soi)』인데요, 이 소설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소수 인종들, 다양한 문화 배경의 사람들이 가족처럼 서로 기대고 삽니다. 이들은 소위 ‘평범한 가족’과는 다소 거리가 있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 소년 모모인데요, 부모를 대신해서 모모를 키워준 사람이 로자 아주머니예요. 로자 아주머니는 파란만장한 생을 살다, 나이가 들어서 는 사설 위탁 가정을 운영하며 다양한 인종의 친부모들이 맡긴 아이들을 키워줘요. 부모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아도 인정으로 아이를 키워주는, 괄괄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죠.

모모는 3살에 로자 아주머니에게 맡겨진 후, 14살까지 함께 살아왔어요. 그런 로자 아주머니가 병들어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모모는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을까요? 그런 절망스러운 현실에서도, 모모는 담담하게 ‘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성숙한 생각을 하죠.

모모의 생각처럼, 우리가 태어난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 생명체의 발생부터 천문학적 숫자로 연결된 우연들 가운데 단 한 개만 달랐어도 나의 탄생은 불가능했어요.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을 쓴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 행위의 근원이 보편적인 죽음, 즉 사멸성을 내다보는데 있지 않고, 각 인간이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든 출생을 돌아보는 데 있다면서 이걸 **‘탄생성**

(natality)’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탄생성이 온전히 발휘되면 인간의 활동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 놓여야 한다고 봤어요. 인간의 활동에는 생존을 위한 ‘노동’도 있고, 혼자 창작물을 만드는 ‘작업’도 있지만, 타인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행위’에 이를 때 세상을 구원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년 모모가 이런 생각까지 하진 않았겠지만, 모모는 로자 아줌마와 끝까지 소통하며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줘요. 저출생 시대에 우리도 출생의 승엄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며, 서로 포용하고 소통하며 돌봐주는 사회를 그리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독일 작가 미하엘 엔데(Michael Ende)의 소설 『모모(Momo)』입니다. 주인공은 ‘모모’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소녀인데요. 이 아이는 자신을 찾아온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잠자코, 열심히 듣는 특기가 있었어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만 줘도, 그 사람에게 치유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모에게는 진심 어린 경청을 통해 위로와 평화를 주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아이들도 모모를 찾아오면 특별한 장난감이 없어도 함께 만들

어 낸 놀이를 하며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색 신사라고 불리는 악당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더 잘사는 미래’를 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축해 주겠다고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죠. 소설에는 ‘시간의 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타인을 위한 마음의 여유**예요. 그렇게 시간 도둑 악당들은 사람들로부터 뺏은 ‘시간의 꽃’을 비밀창고에 보관합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들한테도 시간을 내지 못하면서 더 바빠, 더 많이 일하게 되죠.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덜 행복해집니다. 마치 발전주의 모델 내에서 열심히 일해 경제는 성장했지만,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모습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주인공 모모는 지혜로운 거북이와 힘을 합쳐 시간 도둑들을 물리치고, ‘시간의 꽃’을 찾아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고, 사회에는 온기가 다시 돌죠. 우리가 바라는 미래도 이렇게 서로 귀 기울여 공감하며 위로하고 즐겁게 어울리는 사회일 거예요.

마지막 모모는 바로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예요. 큰누나가 아

이를 낳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가 되셨을 때예요. 갑자기 할머니가 된다는 건 누구에게나 약간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외할머니라는 호칭보다는 엄마의 엄마라는 뜻의 ‘모모(母母)’가 어머니 마음에 좀 더 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드린 애칭입니다.

“흔히 행복을 파랑새에 비유하는데요. 제가 쓴 책의 제목도 『행복 공부: 나의 파랑새를 찾아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파랑새는 늘 어머니의 어깨 위에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시고, 제가 초등학교 가기 직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계속 불편한 몸으로 사셨어요. 그동안 어머니는 홀로 너무 많은 역할을 혼자서 해내셨어요. 이렇게 슬한 역경 속에서도 어머니는 절망에 빠지지 않으셨죠.

어머니는 막연히 미래의 희망만을 꿈꾸시지도 않았어요. 언제나 현재 찾을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합리적 낙관론자’이셨어요. 즐거운 일은 작은 거라도 그냥 미루지 않고 만끽하시는 ‘흥 부자’이셨죠. 가족들이 노래방에 갔을 때 어머니께서 큰 사위의 노래에 흥겨운 춤으로 호응해 주셨던 영상은 보물처럼 남았어요. 어머니는 3대 가족의 울타리가 답답한 가두리가 아닌 행복한 동지라는 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어쩌다가 초저출생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생에서 행복한 시간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행복을 공부하고, 행복을 향한 행동에 용기도 내고 시간도 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리하면서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는 소고기가 아니다! 나는 등급을 거부한다!”

“나는 나 스스로가 귀엽다. 앞으로 더 귀여워할 것이다!”

“우리도 모모들처럼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 서로 돌봐주고, 귀 기울여 얘기 들어주고, 누가 노래하면 옆에서 춤추면서...”

제 얘기를 귀 기울여서 듣고 공감해 주신 여러분, 모두 오늘 저의 모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우 작가님 강연>

결혼과 육아를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려면

● 정지우 : 안녕하세요, 변호사이자 <그림에도 육아>의 저자 정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세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시대에서 가장 매력적인 삶이란 어떤 삶일까?’ 물어보고 싶어요. 제 주변에 청년 세



정지우 작가

10여 년간 작가이자 문화평론가로 살아오다가, 최근에는 저작권 분야의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다. 『청춘 인문학』, 『분노 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그림에도 육아』,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등 여러 권의 책을 썼다. 뉴스레터 <세상의 모든 문화>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대들이 많이 있고, 저도 모임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젊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어떤 삶을 제일 살고 싶고, 너의 꿈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회사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어요.”, “자유롭고 싶어요.”라는 답변이 가장 많아요.

어떻게 자유롭고 싶은지 물어보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특히 SNS에는 수많은 피드와 광고들이 유혹하는 거죠. 해외에서 바다 거북이도 만나고, 산토리니에도 가보고, 보라카이 리조트에서 조식도 먹어보고 코코넛 주스도 마셔 봐야죠. 치앙마이 한 달 살기도 해야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자유롭고 부러운 거죠.

그런 수많은 소원들, 소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꿈과 유혹 속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봤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나는 부럽지 않나?”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부럽진 않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말도 안 듣고, 부모들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도저히 할 자신이 없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누군가는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한

번 들게 되겠죠. 가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과하고 얘기를 해 보는 거죠. 이 세상에 자유롭고 아름답고 멋진 경험들이 많지만,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아이도 키우고 싶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보니 유모차도 필요하고, 분유 값도 필요하고, 유치원비, 학원비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생각하다 보니 혼자 사는 것보다는 돈이 많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혼자 사는 것보다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건 확실해요. 나와 내 배우자가 어느 정도의 벌이는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돈이 좀 많이 들어도 어찌저찌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 주변 사람들 다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보낸다는데 우리 아이는 안 보낼 수 있나?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학교에 다니는 나이가 되면, 학원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등등 **경쟁과 도태에 대한 트라우마**부터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죠. 청년 세대 입장에서 이 벽이 엄청난 **장애물**인 겁니다.

두 번째, 요즘 시대에 수많은 청년 세대들이 주거지 문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죠. 지금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 적당한 빌라에 살아도 출퇴근에 문제가 없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면 직장에서 너무 먼 지역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는데, 결혼 이후에는 적어도 직장과 가까이 있는 지역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위험하지 않은, 적당히 안전한 지역에, 단지 내에 놀이터 정도라도 있는 그런 주거지 정도면 좋을 거 같아요.

이 정도면 평범한 희망인데 그걸 이루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최소한 10억 정도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 10억을 모으려면
맞벌이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한 달에 300만 원씩 30년 정
도만 모으면 됩니다. 충분하죠? 100세 시대에 3분의 1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히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웃음)

첫 번째로는 **결혼 자체가 수많은 인생의 선택지들 중에서 너
무도 매력 없는 선택지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로는,
설령 결혼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들이 청년 세대들에게 결혼을 대하는 문제, 특히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SNS를 켜더니, 너무나 가까운 현실들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저 힘든 현실을 짊어질 바에야, 당장 떠날 수 있는 여행지들이 있고, 저가 항공편도 많아서 큰 부담없이 충분히 떠날 수 있고, 친구들도 다 떠나니 나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훨씬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사회 초년생이 되면, 명품이나 외제차를 할부로 산다는 친구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사치품을 사는 것들이 아이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덜 사치예요. 조금 과장해서 아이 키우는 데 1년 동안 들어가는 돈을 계산하면 외제차를 매년 사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덜 사치인 삶이 더 가깝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삶에 여러 선택지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선택지에 더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선택하겠냐는 거죠.**

우리 시대에는 이미 각각의 ‘삶’이라는 문 앞에서 고민하고, 결정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선택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각 선택지마다 문 앞에 사진이 붙어있는데, 어디에는 지옥 같은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디에는 아름다운 그리스 사진이 붙어 있고, 어디에는 딩크 부부가 매일 저녁마다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진이 붙어 있고, 내가 밤마다 편안하게 넷플릭스 보면

서 게임하는 사진이 붙어있어요. 그 사진들이 우리를 각각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어떤 문고리를 잡게 될까요? 일단 지옥을 선택하지는 않을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머지 선택지의 문을 자연스럽게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문 너머에는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는 삶이 있는데, 문 뒤로는 어머니, 아버지와 삼촌, 큰아빠와 큰어머니, 이모가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신 문 앞 사진 속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저 문을 열면, 우리 아이가 내가 어릴 때 겪었던, 도태 트라우마를 또 겪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청년 세대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이상과 꿈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 꿈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걸 설득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들이 열고 들어갈 각각의 문 뒤에, 어떤 유토피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도 하나의 유토피아로서 청년들에게 어떤 꿈을 제공하느냐, 어떤 **매력적인 초대**를 하느냐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작가님은 아이를 낳으셨다고 하셨는데, 왜 아이를 낳았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30대 초반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내년엔 초등학교를 갑니다. 제가 87년생인데, 제 여동생을 비롯해서 주변엔 아직 결혼 안 하거나, 아이를 안 낳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지게 될 결심을 가졌고, 아이를 가질 수가 있냐고요. 너무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



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계획해서 아이가 생긴 게 아니었거든요. (웃음) 어찌다 보니 결혼을 하면서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생겼으니까 키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직장도 없었고, 공부를 하던 수험생이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이를 선택한 건 아니고, 아이에게 선택을 당한 거였죠.

그렇게 선택을 당하고 보니, 저는 그 이전에 아이 키우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아이 키우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상상해본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내랑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싶을 정도의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신기하게도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식의 삶에 대해서는 SNS 광고나 TV에서도 본 적이 없었고, 영화에서도 주로 육아의 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싶었어요.

물론 힘든 부분도 있죠. 매일 밤을 새서 아이에게 수유를 해야 되고, 그런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너무 좋은 거죠. 특히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시절에 좋은 기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말 아침에 아이 손을 잡고 공원으로 나가는데, 아

이가 “아빠, 근데 이상해꽃이 세, 거북왕이 세?”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머릿속에 있던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나뭇잎 사이로 떨어진 햇빛이랑 아이 손잡고 있는 이 순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삶은 이러라고 있는 거였구나.**’ 내가 맨날 회사 출퇴근하면서, 끝없는 돈 걱정과 현실 걱정 속에서 수많은 소비재와 화려한 소비생활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삶은 내가 나에게 어느 날 도래한 가장 소중한 존재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내 위로 떨어진 햇빛과 바람을 느끼면서, “아마 이상해꽃이 셀 거야” 같은 대답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었구나 싶었어요. 마음이 정화되는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순간을 수없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갯벌에 간다고 하면, 20대에는 단 한 번도 갯벌에 발을 들인 적이 없어요. 갯벌 가면 무조건 여자친구랑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갯벌 좀 구경하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정도였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갯벌에 도착하자마자 무조건 아이와 같이 뛰어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는 플래시를 달고 밤에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3~4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없어요.

휴대폰 알람도 신경쓰이지 않고, 누가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놀랐는지 관심도 없고, 은몸에 흠이 묻고 흠뻑 젖어버릴 정도로 놀다보면, 마치 선물을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왜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걸 한 번도 몰랐지? 20대 때 고상한 척하며 문학책 몇백 권씩 읽고, 영화를 몇백 편씩 봤는데도 왜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그럼에도 육아』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육아를 하기 전까지 책을 20권 가까이 냈는데, 북토크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가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돌아다니면 방해가 되다보니, 북토크에서는 아이들 출입



을 잘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육아에 대한 북토크를 하는데 아이들이 안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하는 북토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풍선을 만들어주고, 북토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자유롭게 두었죠. 제가 좋아하는 지인 중 육아를 하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대담자로 모시기도 했고요. 오신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아이 낳은 후로 북토크에 처음 와본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는 분들도 계셨고요.

놀라운 건 애들이 중간에 돌아다녀도 아무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자리 같으면 직원 분들이 제지를 하거나 조용히 퇴장을 요청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오신 분들이 서로 아이들을 돌봐줘요. 제 아이도 데리고 갔는데 그 날 오신 분들이 아이에게 간식도 주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생각한 아이 키우는 삶은 경쟁하고, 도태되고, 서로 각자도생하는 것이었는데, 왜 여기서는 그런 배제와 혐오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지? 왜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지?', '다른 데 가면 아이 뛰어놀기만 해도 부모가 눈총을 받고 쫓겨나야 하는데, 왜 여기

서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 사회가 뭔가를 상실했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사회는 육아하는 삶을 초대할 적이 없었어요. 초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제**해 오고 있었고, 어쩌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육아를 초대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시공간이 우리 사회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돈 더 줄테니 아이를 낳아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의 공동체로서 육아하는 삶을 이 사회에 들여오고, 거대한 하나의 사회로서의 하나의 공간에 초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삶은 초대를 받는 것과 같다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육아를 떠올릴 때, 지금의 청년세대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도 **‘각자도생의 삶’**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부부가 육아하고, 양가 부모님이 안 도와주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영어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 의대 반을 보내고, 어떤 학원을 보내든지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구나’라는 상상을 먼저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 육아로 들어가는 문 사진에 이런 말이 붙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육아로 들어오는 길은 각자도생의 혼자서 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오는 길이 아닙니다.” **“육아로 들어오는 길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닌 삶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시그널을 우리 사회가 줄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여러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들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려 봅니다 오늘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 정준희 : 안녕하세요? 2024년 유네스코 토크 사회를 맡고 있는 정준희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초저출생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만, 대한민국처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동아시아 국가들이 **“극도로 위축되는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급격히 변화한 현실 상황에 대해, **‘빠른 성공에 이어진 빠른 실패’**라는 해석이 다수를 이룹니다. 경제 성장의 속도



왼쪽부터 정준희, 정지우, 진미정, 김희삼



정준희

언론학자로서 한양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KBS 1라디오의 <열린토론>과 TBS TV의 <정준희의 해시태그>, <MBC 100분 토론>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시민교양학교 해시칼리지를 운영 중이다. 2022년부터 유네스코 토크 사회를 맡고 있다.

가 빨랐지만, 문제 역시 대응할 시간조차 없이 빠르게 발생하여, 지금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지요. 이 상황은 분명 디스토피아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 유네스코에서는 희망의 가능성이나 단초를 함께 찾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 논의를 통해 작은 희망이나 실천의 계기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토크의 제목은 ‘저출생 시대, 현실적 유토피아 상상하기’입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지만, 강연자 분들이라면 이 현상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지우 작가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디스토피아 속 유토피아 상상하기

● **정지우** : 저는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유네스코가 훌륭한 것 같습니다. (웃음) 다만 제가 이야기했던 주제와 조금 더 어울리는 제목이 만약 있다면 ‘**사막에서 오아시스 넓혀가기**’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가 사막 한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남은 물웅덩이에 물려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 서울 집중도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이런 사막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와중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점점 사막화되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오아시스를 넓혀가려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의 공간, 배려와 다정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점에서 ‘오아시스 넓혀가기’라는 제목을 생각해봤습니다.

● **정준희** : ‘사막에서 오아시스 넓혀가기’, 다음 책 제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러면 진미정 교수님께서 어떤 제목을 주실까요?

● **진미정** : 저는 사실 그렇게 근사한 제목은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사실 오늘 초대와 응원 같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왔잖아요. 나의 생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 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가 제일 중요한 저의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 **정준희** : ‘나와 다른 사람과 살아가기’,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김희삼 교수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 **김희삼** : 저도 정 작가님처럼 지금 제목이 좋습니다. 유네스코 사랑합니다. (웃음) 그래도 부제를 하나 보태자면 **‘언제든 안길 수 있는 미래’**라는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디스토피아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은둔 청년이나 고독사같은 겁니다. 핵개

인화나 무가족화가 만약에 진행된다면 이런 경향들이 강화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 안길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 미래가 누구든지 언제든 안길 수 있는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언제든 안아줄 수 있는 존재가 되면 되죠. 사람이 사람을 안는 행위는 상호적이라 그렇게 하면서 서로 안아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든지 아무 말 없이 편하게 안길 수 있는 존재가 있는지 말이죠. 혹시 지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만들면 되니까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게 출발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누구든지 언제나 안길 수 있는 존재를 가진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라는 공포

● 정준희 : 이번에는 사전에 받은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어, 그중에 눈에 띄는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게 대단히 비관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지는데, **비관적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부담스럽고 때로는 공포**



스럽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정말 없는 걸까요?”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미정 교수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진미정** : 저출생을 부정적인 현상으로만 받아들이는 현상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정해진 개인의 생애나 사회 발전 방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또, 대응책을 만들기 전에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상

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치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 알고는 있지만 조금 미뤄놨던 것들을 지금 다시 되짚어 볼 수 있고, 지금이라도 그것들을 잘 해결한다면 이게 꼭 부정적인 미래로 귀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적어도 기존의 병폐나 문제를 전면적으로 짚어보는 계기는 될 수 있다는 거죠.

● **정준희**: 정지우 작가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지우**: 저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이라는 데에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나라 내에서 인구 구조가 근본적으로 무너진다면,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인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즉, 우리나라가 하나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뉴욕이나 런던, 파리 같은 도시에 가보면, 서울보다 훨씬 외국인도 많고 더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는

데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꼭 나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 **정준희** :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건 맞지만 **다양성**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희삼 교수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희삼**: 아이 한 명이 태어났을 때, 그게 사회적으로 득이 더 클지, 실이 더 클지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득과 실은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사회적 이득은 일해서 생산을 늘리고 세금을 내서 공공재 비용을 분담할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한편, 사회적 손실은 인구가 늘어서 경쟁과 혼잡 및 환경 파괴 등이 가중된다는 점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인구가 감소했을 때 긍정적인 점도 있는 거죠. 경쟁과 혼잡이 완화되고 환경 파괴도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꽤 많은 축에 속해요. 그래서 인구 한 명이 감소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적어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있다는 거죠.

반면 저출생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나중에 일하고 세금을 낼 사람이 줄고 사회보험이나 복지 재정도 악화할 위험이 있어요. 그런 득실들을 따져서 최적의 출산율이 얼마이며, 최적의 인구 규모가 얼마라고 추산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불완전하다고 봐요. 사회적인 득실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저출생에 대한 공포는 기존의 우리 인구 구조에서 가져왔던 사회적 관성이 너무 강해서 나타나는 것이

예요. 특히 인구 규모가 지금의 연령대별 구성 비율을 유지하면서 축소되는 게 아니라 역 피라미드형의 초고령사회 구조로 가면서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뿐 아니라 교육, 국방, 연금, 의료, 사회복지 재정 등 사회 영역 전반이 흔들릴 수 있기에 우려하게 되는 거죠. 최근의 극저출생 현상은 기존의 발전주의 모델이나, **갖고 있던 가치관을 돌아볼 수 있는 자성의 계기**로서는 매우 강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와 삶의 비가역성

● **정준희** : 저도 관련 토론을 여러 번 해보면서, 만났던 인구학자들도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회 곳곳이 인구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30년 뒤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적어도 과학적으로는 답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특성이, 중간에 무엇을 하나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구학자들도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하고, 한편으로는 사회 구성원이 이 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응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와 같은, 이

후 적응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연해주신 부분들하고 연관관을 지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지우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작가님의 말씀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문고리 비유였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어찌할 수 없는 경험재인데 살아보지 않으면, 직접 써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중요한 건 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선택지가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나중에 안다고 해도 그걸 무를 수 없어요.

근데 유독 결혼이나 육아의 영역에서는 웬지 내가 다 경험한 것 같고, 이 선택을 하면 내가 망할 거 같은, 경험에 대한 평가가 여타 영역들과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간접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일까요? 육아를 경험해보신 입장에서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더 없으신가요?

● **정지우**: 정준희 교수님께서 상당히 인생의 철학적인, 심오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깜짝 놀란 경험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할 때만 하더라도 들지는 않았던 생각인데,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딱 느꼈어요. ‘이건 무를 수가 없구나.’라고요.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선택이죠. 그러니까 문이 있다고 치면, 그 문들 중에서 제일 무거운 문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인생의 비가역성(非可逆性)**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제 동생이나 사촌들이 “아이를 낳을까?” 물어볼 때 선불리 “낳으면 좋아”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선택은 비가역적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선택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느낀 건, **삶은 원래 비가역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지나간 삶은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어차피 지나간 시간, 오늘 하루 자체가 이미 비가역적인 것인데, 나는 수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뿐이었죠.

선택지가 많이 있으면 마치 그것을 다 선택할 수 있을 거 같지만, 우리는 결국 그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여러 선택 중에서 내가 가장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찾고, 살면서 중요한 걸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가 태어난 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여러 선택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행복보다는 오히려 부담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나를 고르고 나면, 그 선택 내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요. 그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찾으려면 된다는 걸 알고 나니 오히려 삶이 편안해졌달까요?

우리의 삶이 선택을 마친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하나의 선택지를 고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더 깊은 경험과 가치들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준희** : 간단히 얘기하면 ‘직접 살아봐야 안다’라는 말씀이 시네요. 마치 내가 한 선택 때문에 이후의 삶이 엄청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 그 이후를 달라지게 만드는 것은 향후 나의 행동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존, 행복, 돌봄

다음으로, 김희삼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누군가의 잠재적인 삶을 내 멋대로 막아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태어날 기회를 내 스스로 재단해서 막은 거죠. 요즘 사람들은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를 낳아?’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 **김희삼** : 한나 아렌트가 ‘탄생성’을 이야기한 건 개인이 존재적으로 유일무이하다는 것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출생 자체가 완전히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였어요.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이라는 책에서 “기적은 새로운 인간의 탄생과 새로운 시작, 즉 인간이 탄생함으로써 할 수 있는 행위다.”¹⁾라고 했어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죠. 물론 이건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일단 출발점으로서 여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태어난 후에는 어떻게

1) 한나 아렌트 지음, 이진우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9, p.354.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남아있는 거죠.

오늘 제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일단 인간이 태어났으면 그다음 과제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생존**이에요. 인간은 생명체니까요.

제가 지스트에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이름의 강의를 오래 해 왔는데요. 한 학생으로부터 “교수님, 꼭 행복해야 합니까?”, “그냥 살면 안 되나요?”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뼈를 때리는 듯이 정곡을 찌르는 물음이었어요.

사실 사람들이 매일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까요? 대부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행복감이 바닥을 치면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는 아주 드문 존재예요. 즉, 생존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행복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타인인지, 나의 낮은 자존감인지, 혹은 경제적인 궁핍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를 이 불행감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행복을 외치는 사회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회고, 정의를 외치는 사회는 별로 정의롭지 않은 사회예요. 평등을 외치는 사회도 별로 평등하지 않은 사회죠. 제가 행복에 대해 자주 이

야기해 온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기 때문이고, 제대로 된 행복 공부를 통해 행복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행복 공부』라는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해요.

● **정준희**: 사실 **돌봄**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정책적 요소,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적, 문화적 요소가 있잖아요. 사회적 분위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단순히 국가 정책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 아이를 키우는 분이 계시는데요. 주변에서는 자녀들을 다 수학 학원에 보내는데 이 분은 자녀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학원을 안 보냈대요. 그랬더니 저 집 엄마는 계모라는 등, 아이를 이상하게 키운다는 등 터무니없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아이를 키우고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이 많은 부분에서 집단 압력(peer pressure)이 강한 것 같아요. 이 집단 압력을 과연 바꿔낼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요, 어떤 식으로 돌봄이 최상의 가치가 되는 집단 압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진미정** :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집단 착각(Collective Illusions)』이라는 책의 내용을 일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실제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사회는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집단 수준의 착각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출산과 육아도 개개인한테 물어보면 ‘사실 애들을 굳이 그렇게 키울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사회적인 압력이 존재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

면 동네에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우리 집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고, 우리 아이가 왕따가 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데,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따져보면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표준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의 표준일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형성된 집단적인 수준의 착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사실 돌봄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응원이라는 말을 썼던 이유는, 내가 직접 돌봄을 하지 는 않지만 내 옆 사람이 저렇게 애쓰고 열심히 하는 걸 존중하고, 가치 있는 일로 봐주고 응원하는 것들이 돈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응원한다면 사회도 조금이나마 바뀔 수 있는 단초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정 작가님께 자신의 선택은 의미가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의 후반부에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의

어떤 경험과도 굉장히 많이 연관된 측면들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타인의 사례를 통해서 **희망이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가 혹시 있으실까요?

● **정지우** : 저희 아이 친구의 엄마들이 저희 아내한테 같은 동네에 살고 싶다는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저희 애가 A라고 했을 때 “A 아빠가 복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얘기해놓고 보니 자랑 같네요. (웃음)

제가 아이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이 친구들이 있으면 집에 데리고 와서 수박 깎아주고, 놀게 하고, 자고 싶다고 하면 그냥 같이 재우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애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이들을 맡겨놓고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저도 다른 아이들을 저희 집에 초대하고 나면, 저희 애도 또 그 집에 가서 놀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품앗이 하듯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죠. 그런 문화가,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만 있어도 그 안은 말 그대로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만들어져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아파트 아이들은 놀이터 출입도 못 하게 한다더라.’ ‘집 평수로 서로 비교한다더라.’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에 따라서 아이들끼리 차별한다더라.’ 이런 말들은 다 남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좋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배려하고자 마음먹고, 서로를 도와주고자 마음먹고 다른 아이들도 사랑하는 부모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은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결혼과 육아도 진입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마치 지옥의 레이스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들끼리 잘 맞으면 오아시스의 크기를 넓혀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는 어떤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정치학자나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 주위에서부터 아이들을 환대하고, 서로 아이들을 좋아하는 문화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아요.

● **정준희** : 그러면, 김희삼 교수님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혼인을 선택하고, 육아를 그룹에도 선택하는 청년층들의 특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혹시

알려진 바가 있는지요? 또는 그것과 동일하진 않더라도 다양한 삶의 형태들을 선택하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특성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여쭙보고 싶네요.

● **김희삼**: 아까 제가 청년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한국 대학생의 50.5%가 부모의 재력을 꼽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4개국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지역 기반의 사회 자본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도 해봤어요.

먼저, 다들 아파트에 많이 살고 계시죠? 그때 질문은 ‘고층 아파트 승강기에서 평소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입주민 이웃이 혼자 타고 있으면 먼저 인사를 하시겠습니까?’였습시다.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서로 외면할 수도 있죠. 나는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좀 민망해지잖아요. (웃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어떤 환경의 주택 지구를 선호하는 지였어요. 하나는 사생활이 엄격히 보장되지만 이웃과의 소통과 교류는 힘든 폐쇄적인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과의 소통과 교류가 쉬운 개방적인 환경이지만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둘 중 어느 주택 지구를 선호하는지 한국, 일본, 중국, 미국 4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물어보았을 때, 한국 대학생

들에게서 이웃과의 교류 없이 사생활을 중시하는 주택 지구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질문, ‘승강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한다.’, ‘이웃과 교류가 쉬운 개방적인 주택을 선호한다.’, ‘나는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편이다’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대학생일수록 결혼 의향이 높았고, 희망 자녀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한국 사회에서도 외향적이고, 개방적



이고, 우호적인 성격을 가진, 소위 빅파이브(Big 5, 인간의 성격을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증 등 5가지 상호 독립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모형) 중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진 청년들은 여전히 결혼을 원하고 아이도 낳고 싶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 청년의 커뮤니티 문화를 활성화하면 그걸 주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권유를 받아 참여했다가 ‘가보니까 괜찮네.’라고 생각하며 서서히 스며들 듯이 일원이 되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다음으로, 지역에 육아 공동체 같은 것이 있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가령 정지우 작가 같은 이웃한테 아이를 맡기면서 ‘내 아이도 잘 씻기고 먹이겠지?’라고 믿으며 맘 편히 외출할 수 있거든요. (웃음) 그런 공동체들이 지역마다 있다면 이웃이 서로 어울리는 기쁨과 함께 육아에도 든든함을 줄 거예요.

● **정준희**: 세 분 말씀 들으니까 약간 살 만한 느낌이 드는데, 세 분께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죠.

청중과의 대화

- **청중** : 저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이상향적인 목표를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세 분이 생각해보셨을 때, 만약 그런 사회에서 지금 학생들이 생각해보야 될 문제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정준희** : 애초에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뜻이니까, 저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상상돼야 되는 걸까요?



● **정지우** : 사실 저는 사회에 대한 상상력은 좀 부족하지만, 개인적 삶에 대한 상상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사회가 만들어져 가는 방식에 있어서, 한 사회를 어떻게 유토피아처럼 만들 것인지, 이 부분은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네요.

결국에는 **개인적인 단계부터, 가까운 단계부터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토피아적인 요소 혹은 유토피아와 같은 하루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100명과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10명과는 유토피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해야 되지 않



나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선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나 골프 같은, 현실적이고 조금은 염세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게될지라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 삶의 중요한 가치를 교류할 수 있는, 나와 가치관이 맞는 소중한 사람들이 주변에 1명, 2명, 3명, 10명이 늘어난다면 그들과 만들어가는 관계와 연대, 공동체들이 공고하게 내 삶에서 자리 잡아 나갈수록 그것이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만나기 싫은 사람은 웬만하면 안 만나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책 이야기를 좋아하거나 육아 이야기하는 사람, 갯벌 가서 같이 조개 잡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저의 삶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관계들이 많아지고, 이 사회에도 좋은 가치관들이 많아지고, **획일화된 가치관이 아닌 다양한 가치관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 역시 한 사회의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희삼** : 저는 <행복의 조건> 수업을 하면서 좀 많이 불행해 하는 학생들을 학기 초에 더러 만납니다. 수강 신청 경쟁이 아

주 치열하기에 이 수업이 절실한 학생들이 최우선 순위로 수강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기 초에 행복도가 매우 낮은 학생들이, 그중에 다는 아니지만,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수업을 통해 그동안 타인과의 부당한 비교와 자기 비하를 통해 낮추어졌던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5인 1조의 원탁들이 놓인 세미나실에서 수업하는데, 원탁에서 같은 조 학우들과 수업 시간에 삶과 행복에 관해 매주 이야기하고, 따로 모여서 조별 과제도 같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우 가까운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던 **자존감의 회복**, 그 다음에 **따스한 인간관계**, 이 두 가지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새로운 의욕을 줌으로써 행복을 향한 실천력을 키우게 하는 거죠. 그게 각자 개인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힘이 되고, 이들이 모여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미정**: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나왔던 연구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기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에게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되

는지 묻고 답변으로 평균값을 냈어요. 그 다음으로, 기혼이지만 아직 아이를 안 낳은 사람들한테도 양육비가 얼마정도 들어갈지 물어보고, 마찬가지로 답변으로 평균값을 냈어요. 결과를 보니, 아직 아이가 없는 기혼자는 양육비를 실제 비용의 두 배 정도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아이를 안 낳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도입됐고,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것들도 새로 생기고 있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막상 그게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전에는 잘 모르거나, 정



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5년 전, 10년 전에 아이를 낳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시에는 맞지만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오래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나의 삶을 꾸려나갈 때, 내가 할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공공 서비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삶을 설계하고 상상할 때, 개인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거 말고도 우리 사회가 갖추고 있는 인프라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계획을 할 때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정준희**: 김희삼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 **청중**: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은 당연히 타개해야 할 하나의 위기 상황이고 문제가 맞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이걸 기회로 삼아 기존에 부족한 점을 바로잡고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재정의해야 할 개념들이 무엇인지, **가치 또는 제도 차원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이니까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공교육 팽창을 하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도 따로 챙기거나 유급시키지 않고 자동으로 진급시키는 일을 답습해 온 것 같아요. 학생 수가 많아져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였다면, 오히려 저출생 현상은 그런 문제를 고쳐 이상적인 교육을 구현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김희삼** : 지금 말씀해 주신 바가 저는 굉장히 공감됩니다. 시간상 예로 드신 교육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자면, 공교육의 실질적 기능을 줄 세우기식 ‘선별’에서 개별 학생의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을 뒷받침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교육에 대해 우선적인 투자를 하고 의무교육을 초등교육부터 전격 도입했죠.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땐 한 학년에 24반 정도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거기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2부제 수업을 했었던데요.

그런데도 한 반에 80명 가까이 있었으니, 콩나물시루가 따로 없었죠. (웃음)

영화 <모던타임즈>를 보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제대로 조립되지 않은 부품도 그다음 공정으로 밀려나고 작업자는 정신을 못 차리죠.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다음 학년으로 밀어내왔어요. 학생의 성취에 대한 개별적인 배려는 할 수 없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단계에서 선별만 하는 거였어요. 인문계, 실업계로 나누고, 연합고사로 거르고, 상대평가 줄 세우기로 몇 등까지는 어느 대학에 가고 하는 식으로요. 이런 과정들은 말씀하신 이상적인 교육과 너무 거리가 먼 거였죠.

그래도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학점제에 어울리는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라고 말씀하세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공존하면 사실 상대평가로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담당한 교사가 그 수업의 수강생들에 대해 절대평가 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성적에 따라 줄 세우고, 선별해서 배치하는 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

각합니다.

배움의 내용보다 배우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각 학생의 기본 학력을 보장하려면 교사가 개별 학생에게 피드백도 많이 줘야 하는데, 학생 수의 감소는 이에 도움이 되죠. 또 교사가 못 해주는 부분들은 AI와 같은 첨단기술의 도움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그간의 타성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신 의견을 감사히 수용하고, 앞으로 그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기에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진미정 교수님께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 **청중** : 저는 운이 좋게도 지방에서 여러 혜택을 받고, 아이들도 잘 자라줬는데요. 이런 혜택들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서, 학생들이 지방에서 계속 공부하고, 취직을 하는 등 지방에서 남아서 행



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진미정** :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 다루지 못했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생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인구가 줄



어 들면 경쟁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심화되는, 모순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죠. 이런 문제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라, 지역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현실적으로 ‘유토피아를 상상하기’라고는 했는데, 유토피아라고 말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노력하면 다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허구에 가깝죠.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노력과 해결을 강조해서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 못했는데,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 **정준희**: 기존에 일어났던 사회 현상들을 보면 인구가 감소하면 밀집된 지역에 인구가 더 몰리지, 비어있는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더 빠져나가면, 인구가 빈 지역은 인프라를 유지할 수 없고 몰린 지역은 추가 인프라를 감당할 수 없어서 더욱 기형적인 상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를 잘 시켜주신 것 같고요. 그럼 정 작가님께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 **청중** : 타인의 여행이나 독서, 영화감상 같은 간접 경험은 나를 계속 자극하는, 일종의 ‘트리거(trigger)’가 되서 직접 시도로 이어지는 반면, 육아나 출산에 대해서는 그럴만한 유발 요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역설적으로,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낳지 않고는 모르는 엄청난 행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행보다 더 엄청난 행복이라고 하면서, 왜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이들에게 간접 경험을 시켜주려면 어떻게 노출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정지우** : 『그럼에도 육아』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웃음) 간접 경험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비혼, 비출산, 저

출생 이런 문제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가적인 현상인 거 같아요.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절대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싶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요. 그 중에서는 본인 의지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이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어느 한쪽으로 단정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도 누군가에겐 이상에 대한 선택의 문제지만, 또 누군가에겐 포기의 문제, 주거비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문제인 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한 쪽에서는 “나는 낳기 싫은데 왜 그래?”라는 반응이고, 또 반대편에서는 “낳을 수만 있으면 낳고 싶은데” 같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왜 출산과 육아는 간접 체험이 어렵는지 생각해보면 사람의 본능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주변에 힘들을 토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은 기쁘고 행복하고 하면 끝나는 건데, 힘든 일



은 잊히지 않고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한(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요, 저희 부부 모두 영화를 좋아하니까 육아에 대한 행복한 이야기가 있는 영화를 좀 찾아보자 하고 영화를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그런 영화가 거의 없더라고요. (웃음) 그래도 <해피 이벤트(A Happy Event)>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더라고요. 생명의 탄생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다룬 영화인 줄 알고 보게 되었는데요.

반대로 출산과 육아가 얼마나 지옥 같은지 영화 내내 보여주더라고요. 역설적인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는 **육아와 출산을 긍정적으로 그려내는 콘텐츠가 부재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육아예능 프로그램이 있죠. 연예인들이 너무 호화로운 환경에서 육아를 하는 것들이 오히려 박탈감을 주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육아를 다룬 책은 많이 나와 있어요. 육아 에세이라든지 육아 그림책, 육아 동화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잠시 눈을 떼고, 서점에 가시면 생각보다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책들이 많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희삼** : 청중 분들과 나누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요. 2018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있는 사람과 아이가 없는 사람의 응답이 상당히 달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아이가 없는 사람은 35퍼센트밖에 안 됐는데, 아이가 있는 사람은 53퍼센트로 큰 차이를 보였죠. 한편 우리나라에서 청년이 얼마나 행복

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이 유무에 상관없이 답변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실제로 키워본 사람은 아이가 느끼는 행복에 대해서도 아이가 없는 사람보다 더 아는 게 있는 거죠.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진이 사람들에게 어제 했던 모든 일들을 시간대별로 나열하게 했어요.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는지 0점에서 6점까지 평가하게 했거든요. 평균을 내보니깐, 가장 행복도가 높았던 활동이 여행도, 맛집 탐방도 아닌, 바로 ‘아이와 놀기’였어요.

정리하자면, **육아란 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행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행동경제학에서 경험 효용과 결정 효용은 차이가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경험 효용은 내가 해보고 나서 ‘좋다’, ‘나쁘다’를 느끼는 거예요. 한편 결정 효용은 해보기 전에 ‘저건 아마 이럴 거야’라고 예상해서 미래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육아와 관련된 결정 효용과 경험 효용의 차이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편향이 있어서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원시 시대부터 맹수 등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부정적인 신호에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편도체를 활성화해 온 뇌 구조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독박육아, 경력단절, 육아비용 등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가 너무 많고, 그런 게 주로 유통되고 있어요. 부정적 정보를 희석하려면 5배 이상의 긍정적 정보가 필요하다는데, 주변의 행복한 육아 사례도 그 정도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출산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이를 낙담시키는 외부적 요인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준희**: 간접 경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요즘 유행하고 “나만 없어 고양이”라는 말이에요.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죠. 사실상 육아에 대한 대체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왜 나는 고양이가 없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있는 것 같지?’ 같은, 약간은 뒤틀려있는 측면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이걸 어떻게 좀 더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또 상상할 수 있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는 상상력을 가진 몇 안 되는 존재고, 상상력을 실현하고 타인과 협업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성에 대해서 성찰해 볼 필요는 당연히 있으나,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그렇게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상을 함께 모아서 실천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힘들을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정말로 좋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께도 많은 함의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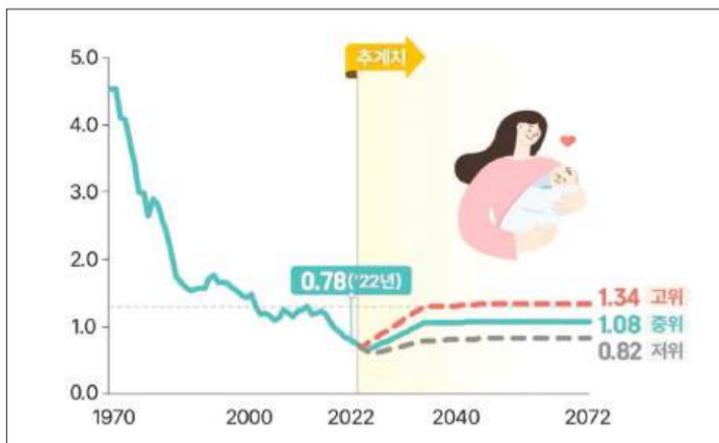
부록

‘코로나 베이비붐’과 현실적 유토피아

김보람 <유네스코뉴스> 편집장
유네스코뉴스 10월호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눈에 번쩍 띄는 이 말은 인터넷 공간에서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다룰 때 종종 볼 수 있는 발언인데요. 초저출생 문제를 다룬 EBS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출산율 현황을 본 조앤 윌리엄스 미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한 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예측치는 0.68명. 인공지능의 계산에 따르면 이는 성비 1대1의 가임기 남녀



2072년까지 한국의 인구 추계(단위 만 명)와 합계출산율 변화 예측치
(출처: 통계청 2022-2072 장래인구추계)

100명으로 이루어진 인구집단의 손자 세대의 수가 단 11.56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인 숫자를 마주한 정부와 전문가들은 각기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몇몇 자극적인 영상들처럼 대한민국은 이대로 소멸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늘 그래왔듯, 우리는 여기에도 적응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이 추세를 반전시키든, 적은 수의 사람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이 추세에 적응하든, 바로 지금 무언가를 바꾸어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슈쿠키 돋보기 🔍 | 잠깐! 저출생과 저출산, 먼저 짚고 넘어가요

지난 6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전하는 언론 기사에서도, 다른 여러 영상과 글에서도, ‘저출산’과 ‘저출생’이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두 용어는 동일한 의미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두 용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출산’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고, ‘출생’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뜻이니까요. 따라서 저출산이란 여성의 출산율, 특히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살)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낮은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출생은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즉 인구 1천명당 새로 태어난 아기의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구 대비 신생아가 너무 적다는 뜻이죠. 참고로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조출생률은 4.9명이었습니다.

아이의 여성만 낳을 수 있으니 결국 이 둘은 같은 게 아니냐고 물을 수

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생률은 당연히 출산율의 영향을 받지만, 전체 인구 대비 신생아의 수를 말하는 것인 만큼 고령화나 전쟁, 질병과 같이 모집단의 크기나 구성을 변화시키는 요소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출산율 변화가 가임기 여성에게 달렸다면 출생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회 전체의 움직임인 것이죠. 때문에 최근에는 저출산 대신 저출생을 언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책임이 ‘아이를 적게 낳는 여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출생인구가 줄어들게 만드는 사회 전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지요. 단, 그렇다고 해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차별적이라거나 틀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각기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라는 점을 알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해요.

각양각색 좌충우돌, 저출생 대책

저출생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건 단지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와 함께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로 꼽히고, 북미와 서유럽 선진국들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대책을 시행해 온 나라도 많습니다. 이들 국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정말 다양한데요. 서유럽과 북유럽 선진국들처럼 넉넉한 기간 동안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는 휴직 제도와 강력한 공공 교육·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고, 점점 높아지는 산모의 연령을 고려해 각종 의료 지원을 대폭 늘리기도 했습니다. 출산 장려금이나 자녀 양육비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현금을 쏟아부어 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이탈리아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복지나 경제적 지원이 통하지 않을 땐 애국심과 국가주의에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오는 11월에 열릴 미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상원의원 J.D. 밴스는 “아이를 낳지 않은 미국인은 이 나라의 미래에 아무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과거 발언이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녀 없는 ‘갯맘’들이 이 나라를 자기네 끔찍한 삶과 똑같이 끔찍하게 만들려 한다”는 그의 발언은 최근 미국 몇몇 주에서 확대되고 있는 낙태금지법안 문제와 연결되며 경제 및 이민 문제와 함께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저출산 대책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국가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각국이 저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왔다는 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책도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2명’ 이상으로 되돌려 놓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북미와 OECD의 평균치는 각각 1.64와 1.59이고,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프랑스는 1.79였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출산율 역시 연도별 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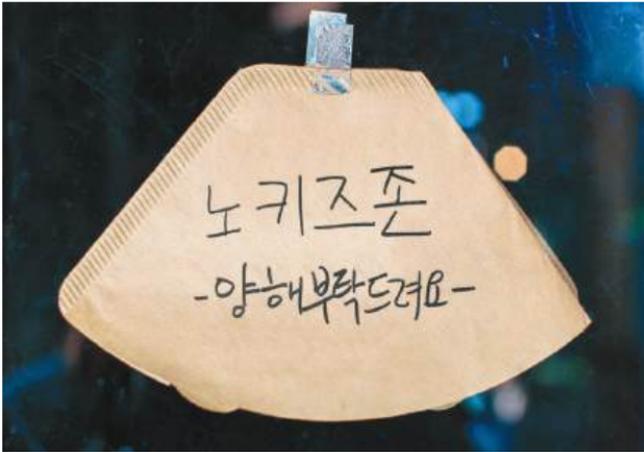
한번 떨어진 출산율을 되돌리는 일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미국의 인터넷 언론매체 vox(Vox)의 가족·직업·교육 분야 선임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애나 노스(Anna nna nna North)는 세계 각국의

* 유네스코 뉴스 10월 호이므로, 미국 대선 이전에 작성된 내용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출생 문제를 다룬 2023년 11월 27일자 기사에서 “여러모로 볼 때 출산율 하락 추세는 곧 성공의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젊은층, 특히 여성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와 삶의 선택지를 갖게 된 결과가 출산율 하락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을 ‘아이를 낳는 것은 실패’라는 뜻이라 오해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단지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오늘날 선진국 시민들에게 더는 유일하거나 일반적인 삶의 궤적이 아니며, 그 어떤 정책도 이러한 인식을 쉽게 바꿀 순 없다는 뜻이니까요. 땡땡한 출산 장려금과 너그러운 출산 휴가, 그리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뜨거운 마음이에요? 어쩌면 ‘모든 시민이 경제적 여건이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라 가정하고 대책을 내놓기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과 사회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파악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삶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모두 응원하고 지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위에서 다양하게 꽃피울 수많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한 가족의 모습
(Popova Valeriya/Shutterstock.com)



한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노키즈존' 안내 쪽지 (atomyang/Shutterstock.com)

삶의 모습 중엔 아이와 함께하는 삶도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

모두의 다양하고 행복한 삶이 가져올 나비효과

“그러니 우리가 투자해야 할 대상은 (출산을 자체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과 그들 각각의 성공입니다.”

앞서 소개한 애나 노스의 기사에서 앨리슨 겐밀(Alison Gemmill)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한 말입니다. 어떤 형태의 삶도,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 중 일부가—혹은 점점 더 많은 수가—아이와 함께하는 선택을 주저하지 않고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출생 해결의 현실적인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지난 8월 8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와 함께 개최한 유네스코 토크의 주제인 ‘저출생 시대, 현실

적 유토피아 상상하기'와도 딱 맞아떨어지는 말입니다. 이 토크를 통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단지 출산을 향상만을 고민하기에 앞서, 육아하는 삶을 응원하고 존중하며 그 선택이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출생 해결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임을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와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정지우 작가 겸 문화평론가도 각자의 시각에서 이를 뒷받침했는데요. 예를 들어 “다름을 인정하고 취향과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 “내 선택과 상관 없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사회를, 돌봄을 응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미정 교수의 말을 듣고 나면, 우리가 응원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은 출산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성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돈 몇 푼 쥐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아하는 삶을 배제하지 말고 초대해야 해요. 육아하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시그널을 전 사회가 주어야 합니다” - 정지우 작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해요. 개인은 지속가능한 행복의 원천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하고, 사회는 개인이 각자의 상상을 바꾸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김희삼 교수

모두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응원하는 게 어떻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지난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북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났던 ‘깜짝 출산율 반전 스토리’를 살펴본다면, 이 사회가 각자의 삶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바탕을 마련해 두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어렵פות하게나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의 기사에 따르면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에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급락했지만 북유럽 5개국(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에서는 적게는 1%(스웨덴)에서 많게는 16.5%(아이슬란드, 2분기)까지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불황이나 경제위기 등의 상황에서 출산율 하락이 발생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상세한 원인과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 여전히 다양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출산휴가에서부터 급여 보장, 공공 교육 및 보육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유럽 최고의 합계출산율을 자랑하는 프랑스를 비롯해 다른 서유럽 선진국들도 이러한 시스템은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만의 ‘플러스 알파’도 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의 속도와 타이밍,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굳건한 신뢰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확한 결론은 좀 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당 기간에 새로 아이를 낳은 커플들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그들의 생각과 말 속에서 저출생으로 고민하는 우리 사회가 애타게 찾는 해답, 각자의 삶을 응원하고 뒷받침하는 유토피아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분명 엿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봄, 남편과 함께 세 번째 아이를 갖기로 결정해 2021년 3월에 쌍둥이를 낳은 아이슬란드의 분자생물학 박사인 그뷔드뫼즈도티르(Guðmundsdóttir)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대 딸들과 함께 집에 머무르면서 함께 밥을 만들어 먹고, 온갖 이야기들을 하며 웃고 떠들고,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십대 아이들과 결코 같이 할 수 없었을 일들을 하며 ‘내가 아직도 엄마가 되는 일과 작별하고 싶어하지 않는구나’라고 느꼈죠.”

핀란드의 발라렌(Vallarén) 씨도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 몇 년 뒤쯤 아이를 갖기로 했었는데요. 락다운이 걸리고 모든 여행이 취소되고 남편과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나중보다는 지금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의 말을 보면 북유럽 시민들에게 출산과 육아는 단지 자신의 꿈과 행복의 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지, 대단한 각오와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따라서 아이를 갖는 결정이나 갖지 않을 결정을 뒤바꾸는 일도 그저 내 삶과 행복을 위한 자연스럽게 평범한 결정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짐이 아니고, 숙제가 아니고, 빚은 더더욱 아니게 만드는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분위기. 내가 내리는 선택이 내 인생에 위협이 아니라 가능성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더 나아가 아이와 함께하는 나의 하루가 이 세상으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그들의 ‘평범한 결정’ 뒤에는 자신이 몸담은 사회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믿음은 보조금이나 휴가, 애국심, 혹은 그 모든 것의 조합으로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닐 겁니다.

저출생과 이로 인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우리 사회는 지금 공존과 관계, 행복, 돌봄과 포용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나요? ‘K-육아’가 나를 갈아넣는 최고난도의 도전과제가 아니라, 오롯이 내 삶과 행복을 위한 지극히 평범한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나요? 우리 사회가 그 변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을 때,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존중받고 응원받고 든든히 뒷받침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확신할 수 있을 때, ‘K-육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선망하는 멋진 삶의 한 갈래가 분명 될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만드는 미래" 7OGETHER 캠페인



미래세대가 떠안을
인구소멸의 위험



AI 열풍 속에
가려진 윤리문제



눈부신 발전이
초래한 기후위기

'투게더 브레이슬릿'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바람직한 미래 변화를 만드는 우리 모두의 실천입니다.



지금 바로 정기후원에 가입하시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저출생 시대, 현실적 유토피아 상상하기

발행일	2024년 11월 28일
저자	진미정·김희삼·정지우·정준희
발행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인	한경구
편집	양지원·이의진
표지디자인	김기현
본문디자인	정명진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유네스코회관
전화	02-6958-4100
전자우편	talk@unesco.or.kr
홈페이지	www.unesco.or.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unesco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unescokor/
ISBN	979-11-90615-61-7

유네스코 토크 시리즈



놀이 뒤집어 보기

대담 송성남·전가일·편혜문
사회 정준희



이주민과 다시 그려보는 '우리'

대담 김사강·이완·한건수
사회 정준희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인공지능(AI)은 가능한가

대담 김대원·류석영·이상욱
사회 정준희



청년, 화려한 이상 혹은
슬픈 자화상

대담 김승연·전성진·정지우
사회 정준희



2023년 여름,
돌아온 전쟁과 청년

대담 김귀옥·김영미
사회 정준희



청년, 공존의 교육을
말하다

대담 변진경·유성상·정용주
사회 정준희

진미정 마지막으로, 취향과 가치를 좀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과 출산은 어떻게 보면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취향대로 선택하고,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나의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약자에 대한 보호나 공동체나 돌봄은 취향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향하는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이 아동과 가족이 갖는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약자와 공동체와 돌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출생이라는 현상보다도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인류가 발전해 온 역사적인 방향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김희삼 한국의 초저출생 현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세상에 보내는 고요한 외침, 또는 시대의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발전주의 모델,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청년들하고 '삶을 바꾸는 상상'이라는 주제로 토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삶을 바꾸는 상상에 대해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때 한 청년분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먼저 상상을 바꾸는 삶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거였어요.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정지우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사회는 육아하는 삶을 초대할 적이 없었어요. 초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제해 오고 있었고, 어쩌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육아를 초대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시공간이 우리 사회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돈 더 좇아라 아이를 낳아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의 공동체로서 육아하는 삶을 이 사회에 들어오고, 거대한 하나의 사회로서의 하나의 공간에 초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ISBN 000-00-00000-00-0 (00000)

값 00,000원

